

(연하장 편지 문구-소식지 삽입)

謹賀新年

한국여성재단에 있어 2004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결실을 통해 재단의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힘찬 도약의 날개를 펴는 한해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22만여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 딸들을 위한 희망세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나눔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여성재단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회원님들께서 나누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평등세상 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면서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여 국내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여성 리더십을 키워나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도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여성재단이 더욱 힘차게 우리 딸들의 희망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유년 새 해에는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그 나눔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년 12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연하장 카드 문구-주요 기부자 발송)

謹賀新年

딸들을 위한 희망세상이 될

을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한국여성재단에 있어 2004년은

그 어떤 해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희망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한해였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나눔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보람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딸들의 희망세상은 더없이 밝기만 합니다.

2005년 새 해에도

나눔의 기적을 이루어낸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온 세상에 그 뜻을 비출 수 있는

축복된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년 12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